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글 | 이한

그림 | 도진영

글 | 이한

그림 | 도진영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혜명

목소리 | 윤성혜

옛날 고구려에 온달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얼굴이 아주 못생겼고, 집이 가난해서 사람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아주 착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구려의 궁전에는 평강 공주가 살았습니다.
평강 공주가 울 때마다 임금님은 놀렸습니다.
“너는 울보니까 바보 온달이랑 결혼해라!”

공주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에게 귀족이랑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평강 공주는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보 온달이랑 결혼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농담이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함부로 농담하는 거 아니어요. 더군다나 아빠는 임금님이잖아요!”

임금님은 무척 화가 나서 평강 공주를 쫓아냈습니다.

평강 공주는 금반지들을 잔뜩 들고 궁전을 나왔습니다.

평강 공주는 바보 온달을 찾아갔습니다.

집에는 온달의 어머니가 혼자 있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고 손도 부드러운 귀한 사람이 어쩌다 여기 왔나요?”

“저는 온달과 결혼할래요!”

그때 온달은 산에 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나무껍질을 벗겨서 밥 대신 먹으려고 했습니다.

평강 공주는 온달을 찾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온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사람일 리 없어! 여우야! 귀신이야!”

온달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온달의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달은 어쩔 줄 몰라했고 온달의 엄마는 공주를 걱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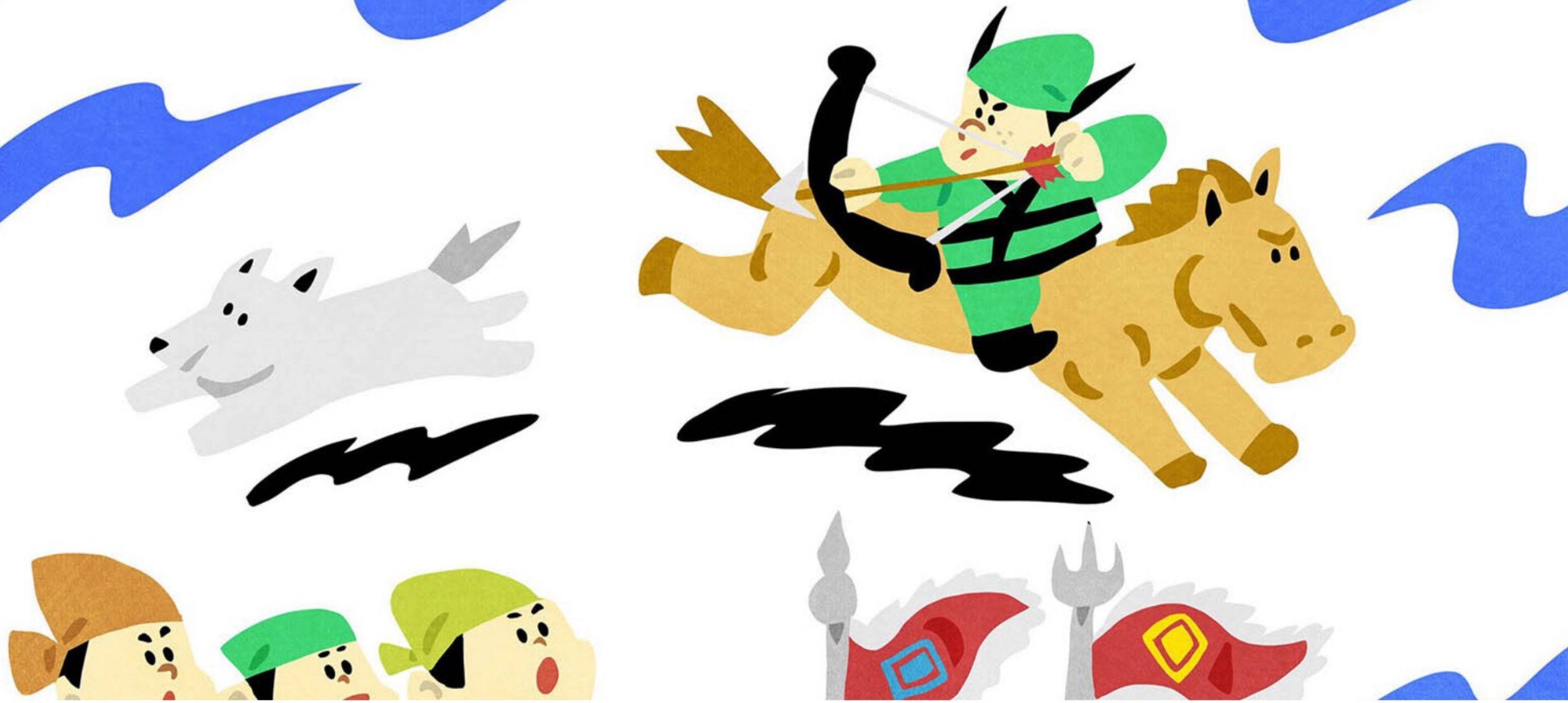
"우리 아들은 천하고 우리 집은 가난한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공주는 말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듯이, 마음만 맞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뒤 공주는 궁전에서 가져온 반지를 팔아 집과 땅을 사고 여러 물건과 하인도 마련했습니다. 온달은 평강 공주와 결혼해서 몹시 행복했습니다.

평강 공주는 온달에게 글자와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달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평강 공주는 온달에게 좋은 말을 고르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달이 말을 사오자, 공주는 말을 튼튼하게 키웠습니다.



큰 사냥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온달이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온달이 대회에서 일등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이웃 나라의 군대가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온달은 병사들 중 제일 앞에 서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온달을 칭찬했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바보 온달이 나라에서 가장 용감하고 씩씩한 장군이 된 것입니다.

온달은 신라와 싸우러 나섰습니다. 신라가 고구려의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감하게 싸우던 온달은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온달의 관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강 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살고 죽는 게 결정되었으니 이제 돌아가세요.”

마침내 관이 움직였습니다.

온달은 바보라고 놀림 받았지만 공주의 남편이 되었고, 또 가장 용감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